



—직업여성을 위한

정상아동의 건강간호—

<정신적인 면>

김 소야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서 론 :

어린이를 키우고 다루는 방법은 등 서양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어린이들의 문제도 그를 보는 경향도 각각 다르다.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태도에 따라 어린이의 정서적 반응과 언행은 달라진다.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젓먹이는 시간표가 필요없이 어린이나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먹였고, 기구도 간단하고 아무때나 용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위생시설이 없었으며, 행동이 자유로웠으며, 생리적으로 볼때는 위생조건의 불충분과 가난과 영양실조, 위생적인 음료수의 결여, 더러운 환경이 었으나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발육이 제때에 제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과히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근대는 어떠한가, 시간표에 따라 젓먹이고, 모유대신 우유를 먹이고 어머니 곁을 떠나서 혼자서 나게되면 기계적이고 능률적이고 자주적으로 되며 산업사회에 어울리는 성격적 특성이 짝되기 좋으나 인정이 없어지고 외롭게 되며 불안해 지기 쉬운것이다.

특히 현대는 기계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성장, 인간소외, 가족제퇴으로 인한 핵가족의 발달, 복잡한 사회구성과 생존경쟁속에서, 외적으로 아동의 부지를 특별히 신체적, '환경적인 복지'가 이룩됨과 동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기대와, 부모와 사회의 욕구충족에 따라 어린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불안은 모든 요구에 적응 하기에는 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계란 껍질과 같아서, 사회화의 원천이며 초기 환경인 부모의 태도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정신병리가 성인의 것과 특이하게 다른점이 있는데 그 까닭은 어린이가 가장 변화 많은 시기에 발육해 나가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환경이라면 어린이가 매일의 생활에서 접촉하는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과 같은 어른들을 말한다. 어른들의 정신장애의 근원은 마음속 깊숙히 있는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어린이의 경우에는 표면 즉 늘 그가 접촉하는 다른 어른들이나 어린이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정신적인 갈등 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실망과 욕구좌절이 문제가 되는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어린이 자신 보다도 그를 둘러싼 어른들과의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선

천적인 요소에 의한 제한이란 보통 생각하고 있기 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요, 어린이에 있어서는 정서적 문제와 신체적 반응이 어른에서 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면서 본론에서는 문제의 근원, 유아의 성격발달에 관여하는 어머니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어린이의 성격, 행동 습관장애에 관한 개괄적인 서술을 하고 결론을 내릴까 한다.

본 론

문제의 근원

모든 어린이의 정신장애들을 병적인 모자관계에서 오는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초자아의 억제와 본능의 욕망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결과로 감정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것이다. 어린이는 어머니와 동심일체이던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는 과정을 밟아 가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한다는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위의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더욱 더 사회화 되어 간다는 뜻이 된다.

Piaget는, 어린이는 해나 달이 어디를 가나 가기를 따라 다니는 것으로 알며, 해나 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는 관계를 알지 못한다. 즉 어린이의 사고는 자기 위주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어른의 사랑과 인정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며, 자기를 내세우고 노출하려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므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정 하게된다. 어린이의 본능 충족을 막는 환경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린이는 거절적이고 반항적으로 된다.

한동세는, 가장 흔한 병적인 태도는 지나치게 걱정하며 간섭많은 어머니와, 지나치게 엄하고 자식의 성취에 대한 야심이 큰 아버지다. 지나친 걱정을 하고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의 자식은 흔히 과잉보호를 받고, 먹고 입고 놀고 공부하는데 일일이 간섭을 받고 자란다. 그 결과 의존적이 되고, 어리광 부리고, 나약하며, 겁 많고, 잔꾀를 부리는 성숙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힘든 사람으로 되기 쉽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아버지는 뜻대없고 힘없이 주저않는 겁장이 아니면, 반항적이고 공부 안하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소년을 만들기 쉽다.

유아의 성격 발달에 관여하는 어머니에 관한 연구.

어린애를 원하는 어머니는 신생아를 새로운 애정 대상으로 맞이한다. 유아의 무력과 요구는 어머니로 하여금 무한한 모성애와 돌보아 주려는 욕망을 느끼게 한다. 어머니는 유아를 완전 소유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요구 충족을 채워 줄 수 있다. 어머니에 있어서 유아는 자기충족, 완결, 창조인 것이다.

생후 몇주간 유아는 진정한 대인관계를 가지지 못하나 점차 지각, 전서, 인지, 운동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어머니가 제시하는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된다. 유아는 자기에게 건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므로 어머니와의 의사전달 수단은 비언어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으나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태도는 좋건 나쁘건 언어적으로 전달되어 유아의 인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유아는 언어의 이해는 없지만 어머니의 감정이나 태도를 직관하고 직감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지각적 운동적 경험을 준다. 유아의 지각발달은 운동발달보다 빠르므로,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그에게 중요하며 이런 변화가 없으면 자극 부족으로 무감정 상태로 빠지게 된다. 즉 모자가 한없이 여러 경험을 되풀이 함으로써 유아는 자기의 요구가 일어나면 충족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을 갖게된다. 이것이 유아로 하여금 기본신뢰를 형성하는 바탕이던 이같은 기본신뢰는 성장후 그의 정서적 건강과 공부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생후 몇주 동안 유아는 자기와 어머니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 상태를 기초적 동일시(primary identification)라고 한다. 이런 기초적 동일시는 지각적 인지적 미성숙으로 일어난다.

정서적 장애를 가진 유아를 연구한 결과, 유아는 어머니가 동시에 기쁨을 표시함이 없이 혼

자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즉 유아는 어머니의 기쁨과 미분화된 전체로서 경험할 뿐인 것이다.

유아가 분노에 차 있을때 유아는 자기의 분노와 어머니의 위안을 융합해서 경험하며, 이것이 되풀이 됨으로써 유아는 좌절 상태에서 긴장하거나 분노했을때 자신있게 위안을 경험할 기회를 학습하게 된다. 이리하여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참여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인격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태도가 타인을 향한 태도에 반영되어 진다고 보고있다.

Fromm(1939)은 자연을 사랑하는것과 타인을 사랑하는것은, 서로 병행된다고 보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다고 보며, Harney(1950)도 같은 입장이며, 또한 Rogers(1951)의 조사에 의하면 자아개념에 있어서 부정적일 때는 그 자신조차도 수용하지 못하지만, 그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서 부터는 타인을 수용하는 것에도 적극적이 된다. G.R. Medinnus와 F.J. Curtis의 정상아와 정상 어머니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자녀 수용에는 매우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해 수용적이고 낙관적인 부모는 그들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를 허용하며, 그의 호기심과 독립적 행동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언동장애

문제아들의 문제는 대개 하나 아닌 여러 가지 일 경우가 허다하다.

성격장애로는 수줍어함, 겁 많음, 사권을 피함 완고함, 짜증냄, 파탄함, 공상함, 감정의 장애 등

행동장애로는 학교 무단결석, 집에서 도망나감, 편식, 음식을 안먹음, 신경질 부림, 거짓말함, 훔침, 잔인함, 성행위.

습관장애로는 오줌싸개, 대·소변 가리지 못함, 손톱을 물어 뜯음, 손가락 빨기, 눈 깜박거리기, 불 수의적 운동, 말더듬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 지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장애의 몇가지만을 정서적인 면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정신 건강간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먹는 문제

어머니가 어린이에게 최상의 보호를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엄격한 식사 시간표에 의해 특별한 음식을 최대한으로 먹이려드는 불안 때문에 아주 어린 갓난 아이까지 먹지 않으려고 거부한다. 어린이가 음식을 거부하면, 어머니는 아이가 문제를 갖었다고 확신하게 되어 불안과 긴장을 증가 시키면서 더 심하게 먹이려고 하게 된다. 또 어머니가 어린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지 부른지, 혼란 상태인지, 오심이 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건강하고 살이 포동 포동 썩 아이를 만들려는 지나친 욕심만을 내세워 심하게 먹는것을 강요하고 과도한 식이를 할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먹는데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보호하는 병적인 태도와 너무 일찍 이유를 시도하고 젖 대신 우유를 먹이며 사랑이 결여된 의무감이 앞선 식이로 인해 아이는 불안과 강박 외로움을 느껴 먹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린이의 음식 거절의 정서적인 요소는 자동적으로 먹이고, 키우는 태부리지 않는 어머니의 애정과는 다른 식의 귀여움이나 포옹, 또는 주의와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또 어린이는 자기의 거부증이 전 가족을 조종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되어,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며 자기의 불평과 우울의 표현일 수도 있다.

또한 식이 방법과 기술에 따라 어린이는 거절, 과보호, 불안, 혼란,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양친부모를 함께 포함시켜 생각해야 하며 우선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버려두고 어린이의 불량한 영양 상태만을 근심하여 대증적인 치료만을 하게되면 증상이 자주 재발하기 때문이다. 원인 규명에 따라 우선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여야 하고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데 관여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다

음으로 식이 방법과 태도를 생각하고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되새겨 보아야겠다.

2) 수면문제

생후 1년 이내에 오는 수면장애는 거의가 어둠속에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 때문이며 두가지 양상의 수면장애를 갖아올 수 있으며 1년 이후 3세 사이에 오는 수면장애는 대·소변 가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대부분이고 이런 본능적 기능의 억제가 너무 일찍 완고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경우 알력, 강박, 불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동생이 생겨 엄마의 관심과 애정이 전보다 줄어들 경우, 질투, 미움, 애정의 결핍 등으로 오고 부모의 사망과 같은 스트레스도 수면장애가 온다. 그외에도 신체적 환경적 요인도 있다.

해결점으로는, 우선 신체적인 이상이 전혀 없을 때는 정서적인 요인을 주의깊게 조사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태도와 요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어둠속에서 혼자 남지 않게 잠들때 까지 같이 있거나 야간등을 켜는등의 조치를 취해 줄 수도 있으며 아주 심하면 신체적, 약물요법도 아울러 취해야 한다.

3) 언어문제

두살부터 4살 사이에 일시적으로 말을 더듬는 일은 아주 흔한 증상이다. 이것은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언어화의 기능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때에 부모가, 특히 자신들이 말을 더듬는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식의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깝게 초조해져 그것에 마음을 쓰고 어린이를 야단치며 그 결과 문제를 본의 아니게 악화시켜 버리기 일수이다.

발음운동의 강직성 경련이 오는 말더듬이 순전히 심인적인 것이며, 기질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 언어문제는 보통 어린이와 부모와의 관계, 가족상황과 연관 관계가 있고 어린이의 언어 발화에 있어서 정서적 부적응이 요인이 된다. 이 언어장애는 어린이 인성발달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즉, 다른 행동면에 양가 감정과 강박성이 드러나는게 보통이다.

말을 더듬는 어린이는 민감해지고 자의식이 강해지며 사회적 활동이나 행동을 피하게 된다.

지각없는 아이들과 어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 철회되고 은둔적이 되며, 어린이는 더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말더듬 또한 고조된다. 또 말더듬이의 좌절감은 어떤 신체적인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말더듬이가 어린이 정신분열증이나 초기 유아 자폐증과 히스테리아 같은 다른 복합적인 장애와 연관되면 말할 능력이 없어지는 함구증을 초래하게 된다.

해결점으로는 언어 교정치료와 정신요법인데 언어교정 치료는 어린이에게 사기를 주게 되도록 항상 칭찬을 하여 어린이가 자기의 언어양상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감정을 이완시켜 언어곤란을 주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어야 한다.

4) 학습 문제

공부하는데 지나치게 걱정하며 간섭 많은 어머니의 태도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우선적으로 공부안하는 아이를 만들기 쉽다. 또 가정의 파탄이나 부모의 사망 사생아의 문제가 학습기 장애를 주고 세대간의 의견차이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부모와 조부모의 자식 교육에 대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상반되는 경우 어린이는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서적 곤란을 받는 아이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낙담하여 학습의 동기와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에 대한 죄악감이 단계적으로 모든것에 대한 관심을 저해시키고 억압적인 죄악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면 할 수록 학문적인 노력이 적어진다. 또한 학습의 주체가 인간의 육체와 관계 있거나 죄의식을 일으키는 내용이면 병적인 죄악감과 예전의 불쾌한 경험이 되살아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신을 피로케 하는지 모른다는 강한 개념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져짐에 불안을 경험하는 분리불안으로 학습 공포증이 생겨서 학습에 실패하기도 한다.

해결점으로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려내고 환경이 미치는 힘을 고려하여 간단한

환경조절과 부차관계 모자관계를 치료대상으로 삼아서 시정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어린이의 인격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부모, 즉 어머니 아버지가 초기환경이 되며 사회화의 근원이 되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됨과 동시에 특별히 유아기의 어머니와 어린이의 관계는 초기 인격형성에 벨레야 벨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다.

좋은 어머니와 어린이 관계의 중요성을 받아 드릴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수용할 수 있을때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풍부한 사랑과 유대를 알고 소통함으로써 건강한 어린이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한동세,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1972
- Kyes, J., od Holfing, C., *Basic Psychiatric Concepts In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1974
- Irving, S., *Basic Psychiatric Nursing*, Philadelphia; Saunders, 1973
- Whittaker, J.O., *Introduction to Psychology*, Philadelphia; Saunders, 1970
-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1963
- Murry, R., ad Zentner, J., *Nursing Assessment and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life Span*, Prentice Hall, 1975
- Geller, J., "Developmental Symbiosis, *Pers in Psych. Care*, 13:1, 1975